

'80년대말 부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는 많은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고 있으며, 특히 구(舊) 소련의 민주화와 개방화에 따른 사회주의 몰락 및 동구권의 붕괴와 동서의 냉전종식 등은 향후 한국방위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측된다.

이러한 급격하고 엄청난 국제정치 및 군사적인 환경변화에 대해 한국 방위산업분야의 기술개발을 리드하고 직간접적으로 방위산업체에 많은 영향을 끼쳐온 국방과학연구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와 한국방위산업분야에서의 새로운 위상에 대해 방산업계 및 관계자 모두의 관심사항이 아닐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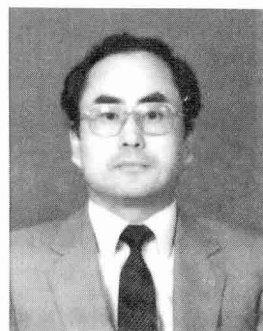
향후 필연적으로 닥쳐올 국과연의 변화과정에 산업계 측면에서 볼때 방위산업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반드시 국내 독자 개발되어야 할 핵심기술분야(레이저, S/W, 미사일 유도제어등)는 기술 특성상 많은 개발인력, 장비 및 개발비가 소요되고 개발기간 또한 길며, 특히 개발후 투자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업계나 학계 독자적으로는 투자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차세대 병기 및 한국형 병기의 개발 등 장기 연구 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개발방향의 제시 및 기술지도등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 국과연은 계속해서 핵심기술개발 및 장기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업체를 리드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생산물량이 보장되고 단기간의 개발이 완료 가능한 병기의 개발은 과감하게 업체주도 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지원해 주고, 국과연은 체계에 대한 기술지원을 담당토록 하여 방위산업분야에 있어서도 업체주도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방산업체의 방산기술 축적의 한계를 감안할 때, 그동안 막대한 정부예산을 소요하여 확보된 국과연의 방산기술 및 시설장비는 업체의 기술력 축적 및 국가지원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업체와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다.

## 방위산업에 있어서 향후 國科 科研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安 泰 英 / 三星電子 특수연구소장  
전무이사, 공학박사

끝으로, 다시 강조하면 시제개발업체의 그동안 일반적인 분야에의 기술력 향상과 투자된 많은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수 있도록 앞으로는 방산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업체와 공존공영의 정신에 바탕을 둔 협력개발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